

지역 소식 통

고창군, '희망2025 나눔 캠페인' 200% 초과 달성

고창군이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총8억1000만원을 모금해, 목표대비 200%를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희망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나눔으로 하나되는 고창군의 저력을 과시했던 평가다.

이번 캠페인은 '가부로 나를 가지있게! 가부로 고창을 가지있게!'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려는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여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뒀다.캠페인은 어린이집 원아들의 저금 통부터 월급의 일부를 성실히 모은 직장인의 적금, 수년째 나눔을 이어온 기관·단체 등의 지속적인 후원 등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착한 선결제'로 소상공인 지원 총력

정읍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2월 한 달간 공공부문의 선결제를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이다.

착한 선결제는 고객이 미리 결제한 후 추후 방문에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시는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30%를 지역 내 식당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선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주요 기관과 단체에도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선결제는 '개산금 지급 제도'를 활용해 집행 목적·장소·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선결제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수행기관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선정, 누리집 통해 기업 10개소 선발 지원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몰에 따라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일 수행기관(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선정을 마쳤으며 수행기관을 통해 이달부터 부안군청 누리집을 통해 기업 10개소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내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월 100만원)를 2년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는 복리후생비(월 40만원)를 2년간 지원하며 군속 2년차에 500만원, 군속 3년차에 800만원의 군속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 네트워킹을 연 2회 제공해 청년

들이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무·회계교육 지원으로 기업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부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설작업 헌신한 공무원들 덕분에 시민 불편 최소화”

이학수 정읍시장, 감사 인사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 피해 없도록 철저 점검 당부”

정읍시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린 폭설에도 발 빠른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학수 시장은 10일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제설작업에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10시 기준 평균 30.68cm의 눈이 쌓이는 기록적인 폭설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제설 차량이 신속하게 투입돼 주요 도로와

취약 지역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정 운영의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진행된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사업 담당자들은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핵심 역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청년 정책 사업 적극 추진 당부

“최근 지속된 한파·대설 이후 해빙기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

권익현 부안군수가 청년층 유입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핵심 대책임을 강조하고 청년 정책 사업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10일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 “청년층의 유입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는 핵심 대책”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예산 공모 사업 등 각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과 정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

이어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추진계획을 재점검해 청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을 통해 유입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최근 지속된 한파와 대설로 인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해빙기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축대 및 옹벽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물과 관내 야외 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민원 서비스는 특정 부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등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 부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기록적 폭설 속 신속 제설작업 호평

부안군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기간 동안 긴급 제설반 등을 가동해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부안지역은 이 기간동안 대설주의보 6회와 대설경보 2회가 발령됐으며 평균 31.7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보안면에는 최고 46.5cm의 폭설이 내렸다.

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 탓으로 도로 곳곳이 결빙돼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군은 많은 눈이 내리자 전 직원 1,000여명을 투입해 부안을 주요 시가지 인도 제설을 실시했으며 읍면 제설반 288명과 긴급 제설반을 편성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섰다.

긴급 제설반은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등 21명과 장비 11대, 염화칼슘 140톤, 제설용 소금 560톤 등을 동원해 모두가 쉬는 주말도 반납한 채 매일 이른 새벽부터 관내 주요 도로인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267개선 노선 등에

/부안=김석진기자



대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지난 7일과 8일 2일간 시내의 버스터미널과 부안상설시장, 석정로, 오리정로, 번영로 등 부안을 주요 시가지에 공무원과 용역기사, 신호수 등 인력 60여명과 굴삭기, 15톤 덤프, 5톤 덤프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또 상습결빙구간에는 도로 열선시스템(우슬재, 공항재, 백포재, 종계타널)과 염사분사장치(말채)를 가동해 결빙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연일 영하권 기온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읍면 나눔대화 후속조치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8일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건의사항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각 건의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총 15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마을 앞 공동묘지 이전 △버스터미널 유리창 설치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고창군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2025년 군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에게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건의사항들이 검토로만 끝나지 않도록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정읍시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

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3,100원에서 73만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1,334원 이하에서 179만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8,000원에서 839만2,000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